



여주대학교

1993년 12월 1일 창간 | 월간 발행

The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News

여주대시 | 모
T L T L

Fun & Tong, Together!

편한 대학, 통하는 대학, 함께 꿈을 키우는 대학!

제119호 | 2015년 6월 8일 월요일

봄을 달군 5월의 열정

20, 21일 양일간 열린 제23회 용마축제



총동문회 체육대회 | 축구 1위 사회체육과, 2위 물리치료과, 3위 스포츠건강관리과
피구 1위 군사학부, 2위 호텔관광과, 3위 스포츠건강관리과
최우수선수상 김수진(특수전과)
복면가왕 | 김태영(간호학과)

우리대학 제23회 용마축제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교내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축제는 각 학과들이 마련한 주점과 이벤트로 북새통을 이뤘다. 물리치료과와 스포츠건강관리과에서 마련한 마사지와 뷰티디자인과의 네일 케어 및 헤어 드라이 서비스는 학생들 뿐 아니라 교직원과 지역 주민에게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본격적인 축제는 양일 오후 5시 이후 소리를, 용마응원단, SM nation,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무대로 시작됐다. 로꼬, 투빅, 걸스데이 등 유명 가수의 무대까지 이어져 열기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다.

노래자랑 '복면가왕'과 '런닝맨 게임', 'OX퀴즈 대회'는 실시간 문자투표 진행으로 학우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긴장감과 함께 모두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축제 이틀째인 21일에는 연예 뮤지컬연기와 학생들과 정태경 총장이 참여한 뮤지컬을 통해 헌혈증 기부행사도 펼쳤다. 학우들이 기증한 5,000여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축제를 주관한 총학생회와 학생처는 "올해 축제 참여자에게 나누어준 팔찌로 경품 추첨을 하는 등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며 "내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i 오서린 기자

지면안내

- 1면 • 봄을 달군 5월의 열정
- 2면 **교내 소식** • 개교 22주년 기념식
• 산업체 저명인사 초청 특강
• 교내단신
- 3면 **사람** • 안현숙 패션디자인과 교수 인터뷰
- 4면 **기획** • 축제 이모저모
- 5면
- 6면 **사회** • 볼티모어와 인종차별
• 타임머신
- 7면 **광장** • 칼럼 / 사설
• 기자수첩
• 시선에서
- 8면 **문화** • 어디까지 가봤니 - 효증릉
• 책을 보다
- 죽음의 수용소에서
• 공연물 안내
- 뮤지컬 데스크노트
• 추천동영상

독자퀴즈 당첨자 | 황인영(간호학과)
이수민(학과 모름. 연락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예지, 김혜빈(사회복지과), 이호정(글로벌여행과), 차승민(도시조경과),
김정은, 정하진, 최성원(치위생과), 임다슬, 윤지호(유통서비스경영과),
곽동훈(자동차과), 송채영, 이미주(관광중국어과) 이상 12명을
정기자로 임명합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여주대 신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단신

여주시 시설관리공단과 MOU 체결

지난 28일 우리대학 소통본부 미팅룸에서 여주시 시설관리공단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태경 총장, 김성구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장들은 “지금까지 명성황후 공언, 지역 행사 참여 등 많은 업무 협력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비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가자.”며 포부를 전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특강



우리대학 콘서트홀에서 지난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의 김진구 전문위원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김진구 위원은 강의를 통해 현재 취업시장의 움직임과 취업난 속의 취직과 이직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통한 성공 사례와 우수 중소기업 구별법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전달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종의 중소기업을 충분히 공부해 입사하는 것이 취업 성공전략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특강을 마무리 지었다.

영어 기초학습프로그램 시행

4월부터 진행해오던 영어 기초학습프로그램이 지난 29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공 학습 시 요구되는 기초학습능력을 끌어올려 수업 적응과 자신감 회복,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편성되었다.

4월 27일을 시작으로 신입생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사랑관과 봉사관 등지에서 주 2일 2시간씩 4주 동안 개설되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관계자는 차후 참여자 만족도를 모니터링 후 차기 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위기탈출, 여주대!!

지난달 20일 우리대학 천연잔디구장에서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학내 구성원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날은 대응훈련 뿐 아니라 축제를 맞이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추진도 함께 이뤄졌다.

훈련을 주관한 총무처 관계자는 “실제 상황은 아니었지만 학생과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명피해 파악이 잘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버이 은혜에 감사하다

우리대학 사회봉사단이 지난달 8일 아버지날을 맞아 금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사랑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물리치료과, 피부미용과, 사진영상과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물리치료, 메이크업,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액팅 잇’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에서 은상



우리대학 연예뮤지컬연기과 연기자 동아리 ‘액팅 잇’이 5월에 열린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올해 전공대학부는 10개의 대학이 참여했다. ‘액팅 잇’은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11명의 학우들이 참여해 백설공주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

이들은 지난해에는 관객상을, 2013년에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진태 교수는 “수상의 큰 공신인 학생들이 아주 자랑스럽다. 이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2살, 뭘 준비를 마치다!!

개교 22주년 기념식 가져



지난 21일 우리대학 소통본부 잔디광장에서 개교 2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개회사와 교훈 낭독과 함께 시작된 1부 행사에서는 교육부 표창(물리치료과 엄기매 교수)과 국회의원 표창(교무입학처 김봉우)이 진행됐다.

이후 모범 교직원과 모범학과(호텔관광과), 20년·10년 근속자에 대한 상장 및 포상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소통본부 3층 통센터에서 이뤄진 2부에는 15년

장기근속자 명단 현판식과 웅마상 제막식이 열렸다.

정태경 총장은 “20주년부터 학교 곳곳에 우리의 가치를 담는 작업을 해왔다. 올 22주년을 맞아 그 작업이 완성되었다.”며 “한발 한발 신구가 조화를 이뤄 새로운 기상을 뿜내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개교 기념으로 제막된 웅마상은 오랜 시간 우리 대학의 상징인 웅마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2년 동안 제작되었다. 정육면체

8개로 이뤄진 철골 구조물 안에 26개의 모니터를 부착한 형태로, 우리대학과 여주의 가치관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는 미디어 아트이다.

모범교직원 |

김찬수(피부미용과), 마정순(스포츠헌강관리과), 이미정(보육과), 박영민(평생교육원), 서정우(클린지원실), 유애현(학생처)

이현지 기자



미래로 나아가는 길

산업체저명인사 초청 특강 가져

우리대학이 지난 19·21일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과 삼성물산 이동휘 사장을 모시고 산업체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먼저 19일에 열린 특강에서는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이 ‘한 평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동대문에서 출발한 블랙야크의 성공신화를 설파했다.

또 21일에는 삼성물산 이동휘 사장이 ‘세계가 부르는 사람, 미래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의 자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양일 모두 500여명의 학우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적극성이 돋보이기도 했다.

두 인사는 “자발적인 태도를 통한 다양한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다.”며 “스스로 돌아보고 인내와 성실함을 가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우들은 “힘난한 취업 과정에 응원이 되는 이야기였다.”며 만족감과 함께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주문했다.

오서린 기자

릴레이 인터뷰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패션을 꿈꾸다

패션디자인과 안현숙 교수

소통본부 통카페 옆에 가게가 생겼다.
프로젝트 F. 뭔가 싶어 보니 패션디자인과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한다.
프로젝트 F 덕분인지 소통본부의 분위기가 한층 멋있어졌다.
예쁜 옷과 유니크한 신발을 보고 있노라면 변신한 내 모습을 꿈꾸게 된다.
패션을 통해서도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 확실만큼 아름다운 패션디자인과 안현숙 교수를 만났다.



◆ 학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2004년도에 패션코디네이션과로 출발했다. 지난해 3월 패션디자인과로 이름을 새롭게 개편했다. 현재 120여명의 학생들과 제 2공학관에서 생활 중이다.

매년 가을 패션쇼를 통해 졸업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통본부에서 학우들과 함께 작품전을 열었다. 호평이 컸다. 현재는 학생들과 함께 소통본부 3층에서 프로젝트 F를 운영한다.

◆ 소통본부 3층에 프로젝트 F가 있다. 여전히 이 공간을 잘 모르는 학우들도 많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진 창업동아리 '만객'이 시초이다.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했다. 학생들 스스로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가진 제품을 만들자는 의지가 컸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동력이 있었고 학과만의 'contemporary man power'

라는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패션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교내 통센터(9시~18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고, 네이버 스타일 원도우에 온라인 매장을 세웠다.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실습과 판매가 이뤄진다. 3월에 오픈하여 조금씩 매출이 늘고 있다.

◆ 프로젝트 F를 준비·운영하면서 뜻깊었던 일은 없었나?

프로젝트 F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도 과정의 연속이다. 뜻깊은 점이라면 역시 학생들이 이 공간을 통해 '경험'을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적극적이다. 창업 과정에서 졸업생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많은 졸업생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패션쇼를 보면 일상복과 거리감이 커서 충격적이기도 하다. 패션도 예술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아직 패션=명품으로 생각해 사치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패션은 무엇이고, 작품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궁금하다.

최근에는 패션을 명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줄어든 것 같다. 물론 어느 패션은 명품으로 봐야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사실 명품으로서의 패션은 상업성이 부족하다. 요즘은 브랜드 자체보다 제품이나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프로젝트 F를 만들게 된 계기도 이것이다.

작품으로 패션을 바라볼 때는 디자이너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애초에 입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작품으로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디자이너의 생각과 가치관이 총집합되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가치가 얼마나 담겨있는지에 가치를 두고 보면 된다. 올해 열리는 우리 과의 졸업작품전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바라보면 된다.

◆ 옷을 잘 입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옷을 잘 입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옷을 잘 입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능한 많은 옷을 시도해보는 거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새로운 옷을 시도할 때 어색해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런 어색한 시간을 거치다보면 어느새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게 된다.

엑세서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잡지책을 통해 자신과 체형이 비슷한 롤 모델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들이 어



떤 옷을 어떤 방법으로 소화했는지 살펴보고 따라하다 보면 어울리는 스타일 뿐 아니라 개성까지 더할 수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이제 한걸음을 밟았기 때문에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앞으로 프로젝트 F에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제품에 접목하여 제작 분야도 확장할 것이다.

지금은 여성복 위주지만 추후 아동복과



남성복으로도 디자인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 신세계 아울렛에 이와 관련된 매장을 세웠다.

앞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토탈 패션 시장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잡까지 이룰 수 있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이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바란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매장도 있으니 쉽게 접할 수 있다. 네이버에 '스타일원도우'라고 치면 우리 브랜드가 나오니 단골도 맺어주고 홍보도 부탁한다.(웃음).

김수진, 변진영 기자

5월 여암학술정보관 도서 대출 순위

- 그림으로 보는 십자군 이야기 2 / 시오노 나나미
- 어떤 하루 / 신준모
-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 / 마사 그래드
- 물은 답을 알고있다 / 에모토 마사루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2/ 박시백
- 샬롯의 거미줄 / E.B. 화이트
- 구중천 3; 천지조화 / 임영기
-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 데일 카네기
- 한 아이 1 / 토리 헤이든
- 옛날에 내가 죽은 집 / 히가시노 게이고

* 전공서적 및

학과 수업에 따른 대출도서는 제외



May' s something



우리가 바로 멋쟁이



내가 바로 춤신춤왕이다!



가면 속에 숨겨진 승자는 누구? 복면가왕



현주야 응원할게!



내 물폭탄을 받아랏



관객의 환호소리가 들려



신나게 셋이 한 컷



호텔외식산업과의 색다른 술



격파합시다!



네일아트



연예연기뮤지컬과 퍼포먼스



안경공학과 시력측정

앞으로의 축제는 ...

이번 음마축제는 여러 가지 이벤트로 북적였다. 덕분에 호응도는 높았지만 더 나은 축제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 무엇이 있을까?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우선 부스의 음향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각 부스마다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틀어 어지러울 정도였다. 또한 여전히 제기되는 쓰레기. 무분별하게 투척한 쓰레기로 인해 축제 내내 바닥이 더러웠다. 주점에서 마련한 다양한 먹

거리로 인한 쓰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학과 천막 뒤편 곳곳에 쓰레기통을 배치해 두었다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무엇보다도 축제기간 중 가장 큰 문제는 안전사고와 음주 문제였다. '술 권하는 축제'는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대학에서는 도를 넘어서 술판으로 운동장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전 문제는 더하다. 각 학과마다 차려진 주점에서는 토치 등을 이용해 음식을



했다. 강한 화력을 내기 위해 설치한 가스통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즐거움과 재미에 모든 것을 양보할 순



없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개선한다면 우리의 축제는 더 빛날 것이다.



이 내가 유스윌리스다!



이 꽃보다 아이들♡



이 어머! 이걸 꼭 사야 해! - 생필품 바자회



이 올거지? 용마축제



이 여주대 F4



이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 헌혈증 기부



이 내 건강 상태는 어떨지? - 보건건강검진



이 화려한 불꽃놀이



이 오늘은 걸스데이!



이 put your hands up!



이 감상 모드



이 너도나도 흥겹게



이 신나게 신나게!



이 칵테일의 춤사위



이 감성에 젖어보자



이 로꼬에게 빠지다



이 오늘밤을 불태우다

I have a Dream

어릴 적 얼굴을 칠할 때면 찾는 색이 있었다. 살색. 살색은 말 그대로 피부색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더불어 황인종의 피부색을 부르는 말로 쓰였다.

2001년 이 표현이 인종차별이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져 연주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쉬운 표기인 살구색으로 칭해진다. 이름은 바뀌었으나 여전히 살색에 따른 차별은 심각하다.

하여 이번 학보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흑백 갈등을 통해 차별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합뉴스

볼티모어 사건 |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에서 지난 4월 27일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4월 12일 흑인인 프레디 그레이(25)가 볼티모어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척추와 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응급 치료는 커녕 그를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져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그리고 사망한 프레디 그레이의 장례식이 치러진 직후 일제히 폭동이 일어났다. 장례식을 위해 뉴스로 침례교회에 모여든 시위대 2,000여 명이 '사법정의'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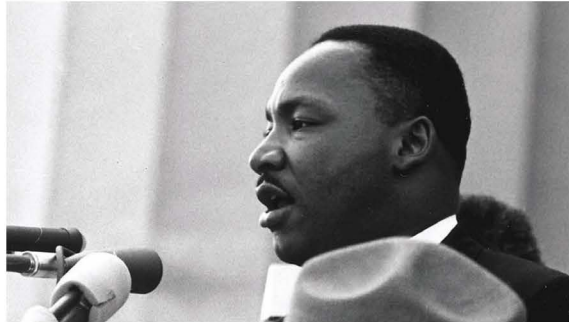
로자 파크스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

1955년 12월 1일, 나는 어느 때와 같이 페어 백화점에서 일을 마치고 6시쯤에 클리블랜드 거리에서 버스를 탔다. 오늘도 역시 백인 좌석과 유색인 좌석으로 나뉘어 있었고, 나는 유색인 좌석 맨 앞줄에 앉았다.

시간이 지나자 앞쪽 백인 좌석이 만석이 되었고, 엠파이어 극장 정류소에 이르렀을 때 백인 두세 명이 더 탔다. 그것을 본 운전기사가 중간에 앉은 우리(흑인)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뒤로 갔지만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신물이 난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얼마 후 경찰관 두 명이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나는 몽고메리시 조례 6장 11절 '분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내가 체포된 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의 의장인 닉슨(E.D. Nixon)의 지도 아래 그 지역의 흑인들이 집단 파업과 버스승차 거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또한 흑인 교회의 목사들과 다른 승차 거부운동을 벌이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몽고메리진보연합(MIA)이 구성된 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의장으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보이콧(거부운동)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흑인들은 직장을 잃거나 해고 위협을 받았고, 다음 해 킹 목사가 구속되면서 보이콧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결국 1956년 6월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도 시 당국의 행위가 헌법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자 보이콧은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승리를 계기를 다른 지역에서도 흑인들의 조직적인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모든 흑인 시위들은 이 사건을 본보기로 했다는 점에서 미국 흑인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위키미디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

저는 흑인 인권운동자인 마틴 루터 킹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킨지도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들의 생활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백인들은 여전히 흑인들을 멸시했고, 백인과는 같은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평범한 꿈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던 도중에 터진 가장 큰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백인들은 몽고메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흑인들이 탈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모욕적인 차별을 참을 수 없었기에 차별적 좌석제에 대한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였으며, 저를 뒤따라 5만의 시민들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승전을 거두게 되었죠.

이후에도 흑인해방 운동 및 흑인인권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워싱턴 대행진 등을 비롯한 수많은 운동을 이끌어 공민법권, 투표법권의 성립을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흑인 권리 운동과 인권 운동을 통해 법률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차츰 흑인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사라졌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동등해지는 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약 175만 명, 국내 다문화 가족은 약 80만 명에 이른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민족'만의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유엔 인종차별 특별 보고관 무투



한겨레신문

마 루티에레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 당국이 관심을 뒤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부터 지적된 배타적 태도와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백인이 황인이나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만연에 깔려있다.

'2014 한국 인종차별 실태 보고대회'에서 김현미 교수는 "한국의 인종주의는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인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다.

SBS에서 2006년, 2011년 두 차례 방영된 다큐멘터리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에서는 이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스페인 출신의 한 백인은 한국에서 한 번도 푸대접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찰 실험에서 그가 길을 묻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모든 한국인들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러나 미얀마 출신의 황인이 길을 물었을 때는 잘 설명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 그의 옆자리에 앉기도 꺼려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대다수의 한국인이 황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에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두려워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차별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또한 우리는 나와 다른 낯선 것을 경계하는 습관이 있다.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무심코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경계를 나누게 된다. 구분은 차별의 시작이 된다.

인종은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차이일 뿐이다. 정책이나 제도로 차별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나와 다르고 낯선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효진, 백가현, 이소연 기자

■ 타임머신

타임머신은 해당 월에 맞춰 국내외 역사를 되돌아보는 코너입니다.

기억하라, 피의 화요일



천안문 사건은 1989년 6월 4일 중국 지도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한 사건이다.

당시 중국 민주화 시위는 1989년 4월 15일 급진개혁주의자로 학생들의 추앙을 받던 정치가 후야오방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시작되었다. 베이징대학교 학생 수 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하면서 민주화 시위가 본격화되었다.

5월 13일부터 2,000여 명의 학생이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5월 18일 학생과 시민을 포함하여 100만 여명이 단식농성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당시 공안당국은 베이징 군을 투입하여 20일 베이징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

다. 또한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과 경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에 대한 체포와 숙청을 단행했다. 급기야 6월 3일 저녁부터 이틀간 천안문 일대에서 군대, 군경과 시위대가 탱크와 장갑차로 발포, 해산시키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서방 세계와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고, 당시 정치를 주도한 덩샤오핑은 보수파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난다.

또한 대륙의 시장 개혁·개방 정책 또한 축소·지체되는 결과를 받게 됐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G2에 오를 정도로 경제·군사적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천안문 희생자들이 요구했던 민주화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사건에 대한 재평가와 진상 규명,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변진영 기자

칼럼

한반도 안보위협과 우리의 자세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역사적으로 6월에는 6.25전쟁, 연평해전 등이 있었다. 특히 금년은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안보가 최대의 보편적 복지라는 생각 하에 적극 동참하고 나라를 위해 순직한 영령들의 넋을 기려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안정성은 오히려 증대되어 있다.

국가 간 전통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새로운 안보문제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동북아지역은 지금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북미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인 동북아는 현재 전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세계 GDP의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동북아지역도 역내 국가 간 경제적 협력관계와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역사문제, 도서 및 영

토분쟁 등의 갈등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고 각국마다 군사력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아지역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실리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등 세력판도를 다시 짜나갈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남사군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안보 전략적 선택을 하고 대비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북아 지역에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분쟁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 이는 곧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우리의 최대 위협국가인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현대판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면서 과연 내부 통치는 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내부불안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제2의 연평도 포격 같은 성동격서식 도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군은 어떠한 유형의 도발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대학에 있지만 한마음으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군을 응원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을 북한은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달성한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가와의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남북대치상황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통일접근(민족공동체추진), 통일 후까지를 내다보는 미래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행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6월이었으면 한다.

강우철

군사학부 교수

사설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며

작년 세월호 사건에 이어 상반기 최대 이슈인 메르스 쇼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세월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언론매체의 경쟁적 보도와 개인 간 소셜네트워크의 파급효과를 실제 메르스의 위험과 공포를 능가할 정도이다. 낯선 질병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은 당연한 사회현상이나 우리 사회가 갖는 상호 신뢰관계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건 경제학적 관점에서건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공익과 조화로운 신뢰관계를 이루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도 목도한다.

선제적 대응에서 무능했던 정부도, 이기적인 시민도 서로를 탓할 시간에 좀 더 소통하며 난국 타개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여주대학교가 안전 수칙을 구성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면서 수업 중단 없이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보다 매 순간 똑심 있고 신중해야 할 필요에서 나온 처사일 것이다.

다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학교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소통을 위해 학내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학생 방송국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하루 세 차례 방송을 통해 학우들에게 뉴스와 음악방송을 해왔으나 현재 실시간 방송은 중단된 상태다. 물론 여주대학교 SNS와 학보사가 언론 기능을 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홍보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개인 간 정보 확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방학 중 학생 활동 프로그램이 타 대학에서 비해 미약하다는 점이다.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강 프로그램, 취업 캠프, 해외 연수, 봉사활동, 국토대장정 등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없는 상태다. 물론 방학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기이다. 주변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어학공부, 여행, 운동, 다이어트, 취업 스펙 쌓기 등등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일상의 해방구를 마련해주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학습 의욕을 북돋우는 잠재적 도약기로서 방학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배치되는 처사이며 방학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하는 마당에 학교 차원에서 재고해야 할 문제다.

또한 계절학기 프로그램에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과 독서 스터디 등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한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계획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설문조사는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자료조사에 그치게 되며 교육부의 각종 정책에 휘둘러 학생들보다 한발 앞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함에 있어 대학이 자칫 소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기자수첩



편견의 힘은 무섭다. 우리는 대부분 편견에 둘러싸여 있다. 편견이란 긍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편견 중 하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고 바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은 물론 외모나 옷차림 등에 따라 대략적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외모나 옷차림이 그 사람의 모든 점이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실례되는 행동이다. 외형에 따른 편견으로 대표적인 예는 장애인과 흑인에 대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안경을 끼고 계십니까?

대부분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수학적 계산이나 악기를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적장애는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며 여러 뇌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생각이 모두 맞지는 않다. 서번트 증후군이라 하여 기억, 암산, 퍼즐이나 음악적인 부분 등 특정한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인종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흑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실험이 있다. 실험자들에게 키보드와 모니터가 주어지고 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같은 배경을 조건으로 흑인과 백인이 한명씩 나와서 총을 들고 있거나 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총을 들고 있으면 1번, 들고 있지 않으면 2번, 버튼을 누르

면 다음 인물로 넘어갔다.

실험 결과 백인이 총을 들고 있을 때와 흑인이 총을 들고 있을 때 버튼을 누르는 속도와 잘못 누른 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백인일 때보다 흑인일 때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이는 인종편견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편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총의 유무를 중요시한 반면 편견을 가진 사람은 피부색에 중점을 뒀서 선택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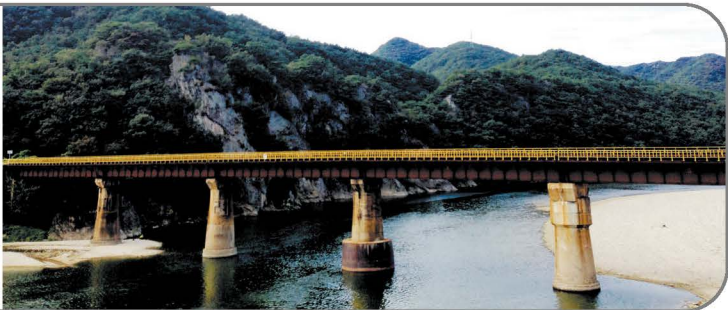
이외에도 편견은 다양하다. 나 또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시아가 좁아 문제를 만들었던 경험도 많다. 편견은 판단을 흐려지게 한다.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이 잘못 되기도 한다. 그런 안경이라면 벗자.

신수교 기자

시선에서

여행을 떠나요^^ 방학을 맞아서

※ 시선에서는 학우참여 코너로 한 컷의 사진과 짧은 글을 2007704@yit.ac.kr로 보내주시면 선정된 학우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가봤니?

슬픔이 맺은 고요함, 영릉



여주에는 두 개의 영릉이 있다. 성군이라 불리우는 세종대왕릉과 조선 17대 군왕 효종릉이다. 효종릉은 편안할 영(寧)이 쓰였듯이 능 주변 푸른 소나무 숲으로 인해 호젓하고 고요함을 느끼게 한다.

17대 효종(재위 1649~1659)과 왕비 인선왕후 장씨가 모셔져 있는 쌍릉으로, 배치가 좌우가 아닌 아래위로 모셔진 것이 특징이다. 원래 이 능은 건원릉 서쪽에 있었으나 석물 틈으로 물이 새 현종 14년(1673년)에

세종릉 동쪽으로 옮겨졌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봉림대군이라 불렸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인질로 8년간이나 청나라 심양에 불모로 잡혀 있었다. 이때의 치욕으로 그는 청나라 정벌을 꿈꾸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였다.

입장료는 세종대왕릉과 같은 500원이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무료이다.

이 오서린 기자

책을 보다

죽음조차 희망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고된 시련과 고통스런 환경으로 부터 도망갈 수도, 감당할 수도 없을 때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 그들은 시련과 환경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들은 정말 죽고 싶은 걸까? 정말 시련과 환경이 원인일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풀려날 때까지의 수기를 기록한 내용이다.

책을 보면 고통스런 환경이 반드시 시련과 아픔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수감자들은 극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느낀다.

도대체 '왜?' '어떻게?' '무엇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삶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삶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

해봅시다."라고 한 수감자는 말한다.

삶이 부여한 고유한 목적과 의미를 찾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이 신수교 기자



이 청아출판사

인기동영상

• 닉 하나우어(Nick Hanauer)
-지식채널e : 미국 1% 억만장자의 논리



• 안젤라 리 덕워스(Angela Lee Duckworth)
-TEDx : 성공의 열쇠는?



TEDx가 공개하길 두려워한 강연이 있었다. 미국 벤처투자자이자 억만장자인 닉 하나우어가 그 주인공이다. 지식채널e에서는 닉의 강연이 논란이 된 이유와 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있다. 영상에서 닉 하나우어는 자본주의 국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향상의 성공법을 이야기한다. 닉 하나우어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무에게도 납득되지 않던 그의 주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얻는 것,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 IQ? 집안? 돈? 안젤라 리 덕워스는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녀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향해 오래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 곧 기개(GRIT)라고 말한다. 꿈과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역량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큰 요소이다.

그러나 또한 재능은 기개를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기개와 재능은 반비례한다. 기개를 기르는 방법은 '마인드 셋(mind set)', 즉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한 번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큰 주춧돌이다."

이 신수교 기자

공연물 안내

비밀과 거짓의 가면을 벗기다, 뮤지컬 '데스노트'



고 이를 수사하는 명탐정 L과의 대립을 그리고 있다. 두 주인공의 짜릿한 심리전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호평을 얻은 작품이다.

이번 뮤지컬은 뛰어난 원작과 더불어 완벽한 캐스팅을 자랑한다. 한국 배우 최초로 웨

뮤지컬 데스노트는 오바타 타케시 작가가 그린 동명의 유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천재 대학생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얻어 범 죄자를 살해하

스트랜드 무대에 진출한 홍광호가 라이토 역을 맡았다. 또한 아이돌에서 뮤지컬 배우로 거듭나며 전 공연 매진을 자랑하는 JYJ 김준수가 L 역으로 출연한다. 연출은 배우와 관객의 지지를 받는 일본 공연계의 거장 쿠리야마 타미야가 맡아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긴장감 가득하고 치열한 천재들의 싸움에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음악과 더불어 배역을 완벽히 소화해낼 배우들의 연기까지 여러모로 기다려지는 작품이다.

공연은 6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이 오서린 기자

<YIT 흡연예절 캠페인>

바르게 피웁시다!!

길바닥에 침 뱉기 NO

비흡연구역에서 담배피기 NO